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

울란바토르

장춘

블라디보스토크

백두산

부산

베이징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2 0 1 7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2017.07.11 ~ 07.31

E u r a s i a

B u s a n

E x p e d i t i o n

*Dynamic*  
**BUSAN**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주

1. 인사말 .....	03
2.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개요 .....	05
3.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추진일정 .....	06
4.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전체일정 .....	07
5.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활동기록 .....	08
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원정대원 .....	22
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활동후기 .....	24
8.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후속사업 .....	30

##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서 병 수 Suh Byung-soo

부산광역시 시장 Busan Mayor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제2기의 성공적인 대장정을 축하합니다.

우리 부산은 환태평양과 중국 동북3성,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의 시종점이자 북극항로의 중심항입니다.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 중국-몽골-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환동해경제권, 북극항로의 3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부산의 비전이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러시아-중국-몽골-러시아 루트를 탐사하였으며, 여러분들이 3개국 9개 도시에서 각종 교류활동, 문화행사,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부산 비전을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중·러 3개 지방정부들과 함께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우리 부산이 환동해권을 벗어나 유라시아권역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과 비전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한 도시들과 맺은 유대관계가 공고히 되어 경제협력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시 민간 외교사절단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난 여름 20박 21일의 긴 여정을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원정대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유라시아 관문도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우리 부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2nd Eurasia Busan Expedition.

Busan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connecting the Pacific Rim, Northeast China, and Eurasia, it is also a hub-port city of the Arctic circle route. It is our ultimate vision and goal to become a global city by constructing the Silk Road Express, departing Busan, going through North Korea, China, Mongolia, Central Asia and passing through Europe, as well as through the economic bloc of the Korean East Sea Rim and the three axes of the Arctic circle.

To achieve these goals, the 'Eurasia Busan Expedition' pioneered the route of Russia-China-Mongolia-Russia doing various exchange activities, cultural events, and volunteer work in nine cit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city of Busan also conducted the North Economic City Council with four local governments from Korea, China, and Russia to realize its vision and initiative to be a global city. Through practical economic cooperation we will try to further expand its influence from the Korean East Sea Rim to the Eurasian region.

The expedition was considered the start of Busan's effort and vision, and the ties with the cities you visited have been strengthened and have led to the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hips. Thus, we shall call you our private missio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expedition members again on the successful end to the 21 day and 20 nights long run with their sense of duty. In addition, we hope to have continuous support from our citizens to grow Busan as the gateway to Eurasia, and a global maritime city. Thank you.

# 기념사

Commemorative Message

## 로이 알록 꾸마르 Alok K. Roy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작년에 이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제2기'의 대장정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제2기' 원정대원 56명은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20박 21일 동안 중국-몽골-러시아를 잇는 총 1만 1164km의 해륙복합 물류루트를 개척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제2기는 지자체 최초의 2회 연속 추진된 공공외교 행사로, 올해는 중국과 몽골까지 확대 추진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북아 중심 부산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권역'의 실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유라시아 통일시대의 관문이자 물류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거점도시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행사,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농구교류,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산데이 행사, 부산-연길 친선의 밤,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등 경제·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면의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함으로써 현지 시민들에게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각인시켰으며, 유라시아 실크로드 주요도시와의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저희 재단은 유라시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러시아·중국·몽골과의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제2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부산시장님과 러시아·중국·몽골과의 원활한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주부산러시아총영사님, 주부산중국총영사님, 주부산몽골영사님을 비롯하여 각 도시의 공관장 및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정대장님들과 자랑스러운 원정대원 56명 모두에게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I am very glad that the big run of 'The 2<sup>nd</sup> Eurasia Busan Expedition' was completed successfully.

This year, 56 participants of the expedition pioneered a 11,164-kilometer-long complex land and sea route encompassing China, Mongolia and Russia for 21 days and 20 nights under the title of 'The path to hope, unity and reunification.'

This 2nd Eurasia Busan Expedition was the first consecutive local government's public diplomatic event promoting the Eurasian economic region. This time it also expanded the event into China and Mongolia, thus strongly demonstrating the willingness to expand to 'the Economic Regions' of Northeast Asia. The expedition has also contributed to further elevating Busan's position as a logistics hub and gateway to the era of a united Eurasia.

In particular, we have been actively coopera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each urban city, holding various events embracing economy, culture, and sports, such as the Busan-Vladivostok 25th anniversary event, Busan-Vladivostok Basketball Exchange, St. Petersburg Busan Day event, Busan-Yanji Friendship Night, and the Busan-Ulaanbaatar Friendship Night. And so, the locals were left with a strong impression that Busan is the gateway to Eurasia. Further cooperative exchange relationships with major cities of the Eurasia Silk Road were also encouraged. In addition, Busan City and our foundation will speed up the Eurasian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with Russia, China and Mongolia in preparation for the Eurasian unification era.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the Busan Mayor Suh Byung-soo, head officials of public organizations in each city, and other persons concerned. I also wish to warmly applaud the expedition leaders and all 56 members of the expedition.

Thank you all again.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개요

- 기간 : 2016. 7. 11(화) ~ 7. 31(월) 20박 21일  
 ※ 7. 11 ~ 7. 12(부산항-블라디보스토크항) : 환동해 해양물류루트 탐험대, 독도 수호행사 운영
- 규모 : 177명(전 구간 탑승자 : 56명)  
 - 원정대 56명(부산 소재 대학생 35, 특별초청 11, 운영진 10)  
 - 부산경제사절단 24명, 부산시립합창단 33명, 부산청소년농구단 19명, 부산의료관광 34명, 시장단 11명
- 주제



- 이동경로  
 부산항(한나라호) ⇨ 블라디보스토크 ⇨ 연길 ⇨ 백두산 ⇨ 장춘 ⇨ 베이징(TMGR) ⇨ 울란바토르  
 ⇨ 이르쿠츠크(TSR) ⇨ 예카테린부르크 ⇨ 모스크바(SAPSAN) ⇨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공) ⇨ 부산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재)부산국제교류재단, 한국해양대학교
- 참가대학 :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협찬·후원 : 부산도시공사, 부산은행, 국민은행, (주)농심, (주)트렉스타,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b>부산·독도</b> (7.11~7.12)	<b>블라디보스토크</b> (7.13~7.14)	<b>연길·백두산·장춘·베이징</b> (7.15~7.18)	<b>울란바토르</b> (7.19~7.21)
· 출정식 · 환동해 해양물류루트 탐험대 · 독도수호행사	· 환영식 · 부산-블라디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부산데이) · 부산-블라디 음악의 밤 ※ 부산-블라디 청소년 농구 교류, 부산의료관광설명회, 부산경제사절단 파견 별도 진행	· 부산-연길 친선의 밤 · 광복의 흔적을 찾아서 · 한국기업 견학(농심) · 통일염원-백두산 답사	·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 문화봉사활동
<b>이르쿠츠크</b> (7.22~7.23)	<b>예카테린부르크</b> (7.25~7.26)	<b>모스크바</b> (7.27~7.28)	<b>상트페테르부르크</b> (7.29~7.30)
· 부산-이르쿠츠크 대학생 친선교류 · 부산영화제(해운대)	· 유라시아분기점(원정대 표지판) 기념식	· 유리가가린우주센터 견학 ·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교류	· 부산데이 행사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추진일정**

1월	사업계획 수립
2월 ~ 4월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계자 회의 등
4월 초중순	사전답사
5월 초	참가자 모집 및 선발
5. 26(금)	1차 오리엔테이션
6월	사전교육(4회)
7. 4(화)	2차 오리엔테이션
7. 11(화)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출정식
7.11(화) ~ 31(월)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대장정
9.6(수)	해단식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전체일정**

구분	일자	시간	행사명	행사도시	장소	비고	
1일차	7.11(화)	13:3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정식</li> <li>환동해 해양물류루트 탐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li> <li>한국해양대 한나라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li> </ul>	해상	
2일차	7/12(수)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 이동</li> <li>독도수호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li> </ul>		해상	
3일차	7/13(목)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영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라디보스토크항</li> </ul>		
4일차	7/14(금)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부산데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라디보스토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해변공원</li> </ul>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블라디보스토크 음악의 밤</li> <li>* 부산의료관광설명회 및 부산경제사절단 파견, 부산-블라디 청소년농구 교류 별도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하모닉극장</li> </ul>
5일차	7/15(토)	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산 → (안중근 단지동맹비, 하산전투기념비) → 훈춘 국경통과 → 연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산 크라스키노</li> <li>훈춘/장령자통상구</li> <li>연길</li> </ul>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연길 친선의 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호텔</li> </ul>
6일차	7/16(일)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복의 흔적을 찾아서 (운동주 생가, 15만발취사건, 3.13기념비, 대성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정</li> </ul>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정 → 이도백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도백하</li> </ul>
7일차	7/17(월)	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기업 견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도백하</li> <li>백두산</li> </ul>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염원 - "백두산" 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심 백산수</li> <li>백두산 서파</li> </ul>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두산 → 장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춘</li> </ul>
		2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8h 55m(장춘 → 베이징)</li> </ul>				
8일차	7/18(화)	0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징</li> </ul>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15h(베이징→울란바토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MGR</li> </ul>
9일차	7/19(수)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영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란바토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란바토르역</li> </ul>		
10일차	7/20(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탐방</li> </ul>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칭기스후레</li> </ul>
11일차	7/21(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봉사활동(벽화그리기)</li> </ul>				
		1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24h(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긴헤르한 19동 유치원</li> </ul>
12일차	7/22(토)	1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영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르쿠츠크</li> </ul>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이르쿠츠크 대학생 친선교류 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르쿠츠크역</li> <li>호텔브리츠식당</li> </ul>
13일차	7/23(일)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이르쿠츠크 대학생 친선 교류 II</li> </ul>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영화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레스토포야빠지</li> <li>이르쿠츠크예술극장</li> </ul>
		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2d 7h(이르쿠츠크→예카테린부르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SR</li> </ul>
14일차	7/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li> </ul>				
15일차	7/25(화)	2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카테린부르크</li> </ul>			
16일차	7/26(수)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라시아분기점(부산원정대표지판)기념식</li> </ul>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26h(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SR</li> </ul>
17일차	7/27(목)	15: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영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스크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스크바역</li> </ul>		
18일차	7/28(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우주센터 견학,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교류</li> </ul>				
		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차이동/4h(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리가가린 우주센터</li> </ul>
19일차	7/29(토)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데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트페테르부르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렉산드롭스키공원</li> </ul>		
20일차	7/30(일)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탐방</li> </ul>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이동(상트→인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li> </ul>
21일차	7/31(월)	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출발(17:15)</li> </ul>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해국제공항</li> </ul>

7.11 **출정식**

Opening Ceremony



▲ 부산시 경제부시장 인사말씀



▲ 부산시 통상진흥과장 경과보고



7.11~7.12

환동해 해양물류루트 탐험대 /  
독도수호행사

Maritime Logistics Route Expedition of  
Korean East Sea Rim / Dokdo Defense Event



▲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 승선



▲ 안전교육



▲ 화합의 밤



▲ 해상물류루트 특강



▲ 한나라호 선장 특강



▲ 부산원정대 대표 출정선서



▲ 축하공연(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부산원정대기 전달



▲ 선내견학



▲ 독도수호행사



▲ 독도

7.13~7.14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환영식

Welcome Ceremony



▲ 환영식(빵과 소금)



▲ 블라디보스토크 시장대행 환영사



▲ 환영공연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부산의 날(Busan Day)” 개막식

Celebration of Busan-Vladivostok's 25th anniversary of the Sistership - 'Busan Day' Event



▲ 부산원정대 공연팀 식전공연



▲ 부산시립합창단 축하공연



▲ 부산시장 인사말씀



▲ 비흐리 공연팀 축하공연



▲ 테이프 커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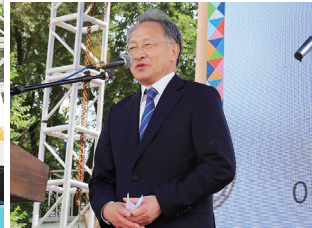
▲ 블라디보스토크 시장대행 인사말씀



▲ 부산원정대 무대인사



▲ 부산도서기증식



▲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 인사말씀



▲ 기념촬영

### 행사장 전경

The Whole View of the Event



▲ K-pop 경연대회



▲ K-pop 경연대회 우수팀 시상식



▲ 한복체험 및 포토존



▲ 한글 이름 써주기



▲ 어린이존



▲ 이벤트존



▲ 한국라면 시식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농구 친선경기

Busan-Vladivostok Youth  
Basketball Goodwill Game



▲ 농구 친선경기



▲ 기념촬영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음악의 밤  
Busan-Vladivostok Music Night



▲ 부산시장 인사말씀



▲ 부산원정대 무대인사



▲ 부산시립합창단 공연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합동공연



▲ 부산시립합창단 피날레 공연

## 부산관광사진전

Busan Tourism Photo Exhibition



▲ 블라디보스토크



▲ 이르쿠츠크

7.15  
연길  
Yenji

## 부산-연길 친선의 밤

Busan-Yenji Friendship Night



▲ 연변대학 환영공연



▲ 연변대학 환영공연



▲ 부산원정대 공연팀 K-Pop 공연



▲ 친선 교류



▲ 기념촬영

7.15~7.16  
용정  
Longjing

광복의 흔적을 찾아서  
Look for a Trace of Korea's Liberation



▲ 윤동주 생가 방문



▲ 15만 탈취사건



▲ 대성중(윤동주 모교) 방문



▲ 3.13기념비

7.17 이도백하·백두산

한국기업 방문-농심 백산수 공장

Field Trip to a Korean Corporation - Nongshim Baeksansoo Plant



▲ 농심 백산수(기업스토리) 소개



▲ 홍보관 투어

▲ 백두산 답사(서파)

통일염원-백두산(서파) 답사

Hope of Reunification

- Exploration of Mt. Baekdu(West)



▼ 백두산 천지



7.19~7.21  
울란바토르  
Ulaanbaatar

환영식

Welcome Ceremony



▲ 몽골 전통 환영식



▲ 기념촬영

부산-울란바토르 친선의 밤

Busan-Ulaanbaatar Friendship Night



▲ 울란바토르 공연팀 환영공연



▲ 부산원정대장 인사말씀



▲ 울란바토르시 부시장 인사말씀



▲ 양 도시 학생 친선 교류



▲ 친선게임



▲ 기념촬영

문화봉사활동

Cultural Volunteering



▲ 성긴헤르한19동 유치원 벽화그리기



▲ 성긴헤르한 동사무소 학용품 기증



▼ 몽골 칭기스후레 캠프

7.22~7.23  
이르쿠츠크  
Irkutsk

환영식

Welcome Ceremony



▲ 기념촬영

부산-이르쿠츠크 대학생 친선교류 I·II

Busan-Irkutsk University Students Exchange



▲ 부산 소개



▲ 이르쿠츠크 소개



▲ 친선교류



▲ 기념촬영

부산영화제

Busan Film Festival



▲ 부산원정대 공연팀 축하공연



▲ 부산원정대 무대인사



▲ 이르쿠츠크 예술극장

▼ 바이칼호수



7.26  
예카테린부르크  
Yekaterinburg

유라시아 분기점 기념식  
Celebration of Eurasia Junction



▲ 기념주화 만들기



▲ 유럽-아시아 경계비 리본cut 행사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이정표 설치



▲ 유럽-아시아 경계횡단 인증서 수여식



▲ 유럽-아시아 경계 횡단 축하행사



7.22~7.28  
모스크바  
Moscow

환영식

Welcome Ceremony



▲ 환영식(빵과 소금)



▲ 러시아철도국 부국장 환영인사



▲ 기념촬영



▲ 러시아 철도국 악대연주

유리가가린우주센터 견학·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 교류

Field Trip to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 Busan-Moscow Next Leaders Exchange



▲ 우주인 특강



▲ 우주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우주센터 견학



▲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 교류

7.29~7.30  
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부산의 날(Busan Day) 개막식  
Busan Day Event



▲ 식전행사-시물놀이



▲ 부산원정대 공연팀 식전공연



▲ 부산시 경제부시장 인사말씀



▲ 부산원정대 무대인사



▲ 현지공연단 축하공연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대표 인사말씀



▲ 테이프 컷팅식

행사장 전경

The Whole View of the Event



▲ 한국음식 시식



◀ 오방실팔찌 만들기

▼ 한국문화 체험존



▲ 한국전통놀이 체험존

### 열차이동

Proceeding by Train



▲ 장춘 → 베이징



▲ 베이징역 환승



▲ 베이징 → 울란바토르 몽골횡단열차(TMGR)



▲ 울란바토르 → 이르쿠츠크 몽골횡단열차(TMGR)



▲ 이르쿠츠크 → 예카테린부르크 시베리아횡단열차(TSR) - 특별초청 특강



▲ 이르쿠츠크 → 예카테린부르크 시베리아횡단열차(TSR) - 특별초청 특강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원정대원**



원정대장 박성명



원정대장 이상민



특별초청 문수원



특별초청 이기녕



특별초청 이윤성



특별초청 임석준



특별초청 장세화



특별초청 정용재



특별초청 최치영



특별초청 홍현옥



특별초청 황종환



대학생 강윤원



대학생 곽진석



대학생 김건우



대학생 김민우



대학생 김소연



대학생 김유진



대학생 김재환



대학생 김주현



대학생 김채은



대학생 김태완



대학생 문경현



대학생 문자경



대학생 박규리



대학생 박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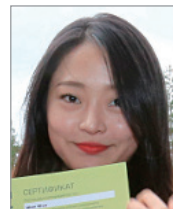
대학생 성원준



대학생 송은수



대학생 신영하



대학생 신유나



대학생 신지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원정대원



대학생 오지훈



대학생 우선희



대학생 이다윤



대학생 이민형



대학생 이상현



대학생 이성려



대학생 이윤지



대학생 이은지



대학생 이의범



대학생 이지민



대학생 전상봉



대학생 전수빈



대학생 정민교



대학생 조용준



대학생 한동민



대학생 황희은



운영진 강민주



운영진 강유원



운영진 김보민



운영진 김현영



운영진 서대석



운영진 손은선



운영진 손희승



운영진 신창훈



운영진 이종철



운영진 정기영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장 **박성명**



대학생과 일반인 등 56명으로 구성된 우리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2017년 7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20박21일 동안 1만6천여km에 달하는 물류루트 탐사 대장정을 마치고 7월31일 다시 부산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부산원정대는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 기치 하에 바닷길과 육로를 지나는 동안 무역도시로서 영화를 누렸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중국 연길, 장춘, 베이징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 9개 도시에서 경제, 문화교류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거점도시와 부산 간 투자와 무역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며 민간사절단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특히, 원정대원 56명중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은 각 도시에서 펼친 K-Pop 공연대회, 부산홍보관, 관광사진전, 한국 음식 및 문화체험행사 등을 주도하며 해당 지역 학생,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어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부산을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번에 쌓은 소중한 경험이야말로 청년탐험대 한 사람 한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요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물류탐험 대장정이 앞으로도 학생들의 열정적 참여와 부산시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부산이 글로벌 무역도시로서 세계인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고 각국의 거점 도시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정대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장 **이상민**



블라디보스토크 공연장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연해주에서 오신 고려인 동포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대원들도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바이칼 호수를 품고 있는 시베리아의 소도시에서 “해운대” 영화를 보기위해 공연장을 꽉 채운 러시아인들을 보면서, 또한 유라시아의 각 도시에서 대한민국 부산의 문화와 음식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현지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원들은 러시아, 중국, 몽골, 3개국 10여개 도시를 거치면서 공연, 문화와 음식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알리는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의 아시아쪽 관문에 있는 부산이 친취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진다면 저 넓은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경제적 협력은 물론 문화적 주도권을 가질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을 이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좀더 나은 프로그램과 친취적인 모습으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가 지속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박21일 동안 함께한, 56명의 우리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기에 2017년 원정대가 성공리에 임무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행사를 직접 운영한 대학생 원정대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신 이윤성 부장님,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최치영, 황종환, 정용재, 문수원 선생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운영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매번 멋진 공연을 펼친 지민, 유나, 유진, 소연, 우리 공연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장

**이 종 철**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향후 남북이 철길로 연결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유라시아 대륙 출발도시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에서 출발한 물류가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물류루트 개척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7월 부산시민들의 부분 꿈을 안고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첫 닻을 올린 게 었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 2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원정대가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광활한 러시아 대륙 10,900km를 거침없이 횡단하였다면, 이번 원정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이 추가되어 총 3개국 11,164km를 횡단하여 방문국가에 대해 도시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작년도 원정대 프로젝트의 준비 경험이 있기에 이번 2기는 더욱 철저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지만 행사 준비는 역시나 손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올해 새로이 추가된 중국 루트는 사드갈등으로 인해 현지 정부의 협조와 대원들의 안정성 확보 문제에 있어 우려곡절이 많았고, 원정대의 첫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는 행사 전날 갑작스레 불어 닥친 돌풍으로 무대 세트가 다 무너져 다음 날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질 만큼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세 문제로 연결에서 진행된 대학생 교류행사, 민족의 영산 백두산 등정 등 비교적 조용하게 행사를 진행한 대신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원정대원들을 위해 이동 시에 중국 공안이 에스코트를 지원해주었으며, 베이징으로 넘어가는 장춘역에서는 원정대원 전용 탑승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불행한 사고 속에서도 다함께 힘을 모아 밤샘 작업으로 무대 복구에 성공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2년 연속 거행된 원정대의 묘미는 바로 고진감래 입니다. 고생한 만큼 낙이 찾아오는 원정대 사업을 통해 저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대원들이 힘든 여정을 통해 벅찬 감동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모습들과 낯선 이방인인 우리 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현지 정부 대표와 시민들을 통해 교류가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정대의 종착지이자 부산의 자매도시이나 멀게만 느껴졌던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의 교류가 본 행사를 통해 2011년 이후로 다시 활성화 된 것은 우리 원정대의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3기 원정대는 어떻게 기획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인 중앙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관통하는 루트를 개척해보고 싶고, 새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 중 하나인 북극항로와 연계한 루트, 또 이러한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내세운 중앙정부와 함께 원정대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는 좋은 사례도 남겨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년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모드를 조성하여 북녘의 땅을 밟아 원정대 슬로건인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이 실현된다면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정대 프로젝트는 이제 유라시아 관문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對유라시아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선봉장으로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유라시아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파이팅!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장  
**정 기 영**



유라시아의 관문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도시 우리 부산을 중국·러시아·몽골에 알리고, 교류를 통해 이들 국가 및 국민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작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유라시아 원정대가 출범하였습니다.

탐험 시작 다음 날 새벽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동해바다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독도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오르고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항일운동 기념비를 답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원정대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탐험활동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연변 조선족 동포 대학생과 만남, 우호협력도시인 울란바타르시와 교류 등 방문도시마다 의미 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민간외교사절로서 원정대의 활동은 방문도시들과 부산의 우호협력과 상호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활동은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20박21일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대학생 원정대원들 간에 처음의 서먹서먹했던 분위기에서 서로 간에 벽을 허물고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원정대라는 한팀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학창시절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때문인지 한편으로 부러웠고 저도 함께 부드했습니다.

2017년도 제2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두 분 원정대장님들을 비롯한 특별초청으로 참여하신 분들 및 운영진 여러분께서 귀국하는 날까지 성공적인 탐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우리 원정대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초청 황중환



Boys be ambitious!  
고교시절 영어공부하면서 기억된 문장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건 - 꿈!  
그래서 난 항상 꿈 목록을 작성하는 버릇이  
있다.

#### 나의 Dream List!

꿈 목록 중에 하나였던 바이칼 호수(우리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  
가면 시원문명의 발상지)탐방.

부산시에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모집이 있었다. 마침 119 구  
급대원으로 오랜 경험과 각종 화재, 구조, 구급출동을 한 경험으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의료안전팀으로 지원하였다. 감사하게도 의  
료안전팀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7년 7월11일(화) 드디어 출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에 탑승하  
여 출발~

설레임과 낯설음이 함께 교차하는 마음속에 우리 원정대원 56명  
은 모두 밝고 활기차게 출발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부산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바닷길에 독도를  
보게 되는 행운을 함께 하였다. 독도! 그 이름만으로 애국심을 불  
러일으키는 섬! 정말 감사하게도 한나라호 선장님의 배려로 동해  
의 장엄한 일출과 함께 독도를 만났다. 감격의 기쁨에 기념 사진찍  
기에 여념이 없다.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와~~ 감탄사가 절로..... 러시아!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직접 러시아인들을  
만나보니 너무나 좋았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시 환영행사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환영과 무사귀환을 기원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부산데이' 행사. 준비과정에 돌풍으로 인  
하여 부산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의 밤샘 작업으로 무사히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중국 국경으로 가는 긴 시간동  
안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도 원정대원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이동하  
였다. 중국 국경을 버스로 넘다니..... 설레임도 느낄새 없이 하  
산, 연길, 용정을 거쳐 이도백학, 백두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바로 백두산 천지, 그곳을 대원들과 함께 올랐다.  
꿈만 같았다. 날씨도 원정대원편이었다. 백번 올라 두 번 본다는  
그 백두산 천지를 우리 대원들은 맑은 하늘아래 펼쳐진 맑고 푸른  
천지! 이 감동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하랴.~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기  
를 기원하면서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춘에서 베이징  
으로 가는 기차, 처음 타보는 침대칸 열차. 베이징에서 몽골 울란  
바토르행 국제열차에 올랐다. 몽골! 역사속에서 그토록 많이 읽고  
배웠던 그 나라, 몽골. 칭기스후레 게르에서 숙박을 하였다. 내가

있는 이곳 몽골 칭기스후레 게르! 너무나 멋진 야경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속에서 천년전 그들의 후손  
들이 지금도 말, 소, 양, 염소, 낙타 등을 키우며 살아  
간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초원을 산책하다, 부  
산국제교류재단 운영진을 만났다. "저를 이처럼 멋진  
곳에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수고로움에 무엇으로 보답하랴, 지금  
이렇게 지면을 빌어 '부산국제교류재단' 직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린다. 몽골에서의 멋진  
체험과 몽골을 다시 알게 된 것도 잠시, 아쉬움을 뒤  
로하고 다시 열차에 오른다. 오직 바닷길과 육로로만  
이동을 하니 즐거움, 힘겨움 등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가는 길은 색다른 풍경을  
선사해 주었다. 드디어 바이칼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  
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바이칼호수에 발을  
담갔다. 야호~

살면서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독도! 백두산 천지! 러시아 바이칼 호수!를 모두 다  
안개도, 구름도 없이 맑게 개인날에 나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행운을 누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카테린부르크 아시아와 유럽 경계에 있는 도시.  
소원리본을 달고 모두들 기념샷~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유리가가린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참새언덕도 둘러보고, 붉은광장  
에 내가 서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  
금 나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원' 모두가 함께 무사히  
이곳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다. 멋지다!~ 드디어 마  
지막 일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마지막 행  
사인 '부산데이'를 원정대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성대하게 마무리를 하였다. 부산데  
이 행사에 부산대학교 전통무용과 학생(이지민, 신유  
나, 김유진, 김소연)들의 전통무용을 출 때에는 우리  
원정대원 모두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이 머나  
먼 곳에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학생들이 있구  
나! 모든 학생들이 수고하였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점 죄송할 따름이다. 끝으로 함께한 의료안전팀(정용  
재 선생님, 전상봉, 곽진석, 김태완, 우선희, 신지은,  
김채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학생  
**이성례**



우리의 여정은 가장 '부산'다웠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이었다.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며 방문했던 여러 도시에서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과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의 대학생활을 알리며 많은 교류를 했다. 많은 행사 중 특히 '부산데이' 행사가 가장 인상 깊다. 우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산데이'라는 홍보 행사를 했다. 많은 교류 행사 중 '부산데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대와 준비를 많이 한 행사인데다 그 만큼 가장 힘든 행사여서 그런 것 같다. 두 번의 '부산데이'는 같은 러시아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즐기는 방식, 한국을 대하는 방식까지 블라디보스토크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산데이는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두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부산'답다는 느낌을 받았다. 확연히 다른 러시아의 두 도시에서 어떤 부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까?

먼저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은 부산사람 같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지리적으로, 도시와 시민의 모습과 분위기로도 무척 동양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센 러시아 발음과 큰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의 대화는 러시아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강한 역량의 부산 사투리같이 느껴졌다. 화끈한 부산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릴 수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부산 같다.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가장 유럽과 가까이 있는 러시아의 대도시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은 한류의 근원지이자 항상 궁금한 먼 아시아 나라이다. 우리가 행사를 진행 할 때면 함께 사진을 찍길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영어가 잘 통하는 글로벌한 대도시였다. 궁금증이 많고,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의 현재모습을 여기서 찾았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상호적인 외국 방문을 원했던 나에게 유라시아 원정대원으로서 보냈던 올 여름의 스무 날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날들이었다. 56명의 열정으로 보냈던 20박21일간의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나에게 온 스물한 번 째 생일 선물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내가 원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이 딱 맞물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몽골, 이 세 나라는 여행을 좋아하는 내가 늘 여행을 꿈꾸는 여행지였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넓은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것, 푸른 몽골의 초원에 별을 바라보는 것, 백두산 천지를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추억으로 회상하는 행복감과 이 모든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을 수 있는 미소는 영원할 것이다.

대학생  
**김건우**



우연한 계기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를 알게 됐고, 처음 지원할 때만 해도 스스로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원정대 여정을 떠나기 직전까지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일까?"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들과 인생에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여정을 떠난다는 생각

딱, 거기까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정대의 각각의 개인의 임무를 준비하면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방문해 들어설 때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홍보기획이라는 임무를 부여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셨고, 그것을 제외한 아이디어 컨텐츠 등 모든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헷갈리기도 했고, 이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과 준비만 잘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직접 보여주고 제공할 순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1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우리가 가는 이유, 가는 길이 시베리아 랜드브릿지이며, 물류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고, 2차에서는 특별초청대원, 박성명, 이상민 원정대장님까지 포함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알게 됐고 우리는 7월 11일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거쳐야하는 수많은 행사와 들고 옮겨야하는 짐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각 팀의 책임(홍보기획팀, 강의교육팀, 인원점검팀, 촬영기록팀, 의료안전팀, 공연행사팀)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씨앗과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기도 했고, 부산데이(Busan Day)라는 중요행사에는 각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현지 조선족, 몽골, 러시아 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강의와 문화 활동으로 부산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 공연 팀은 한국 현대 무용을 보여주는 것 등 각자 모든 일에 너무나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의미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조언들과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보다 책임을 가지게 만들고, 스스로 헤쳐 나가길 바랐던 어른들의 마음, 그곳에서 겪고 성장하면서 자신을 더 다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평생 저에게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의 부산에서 시작해 중국 연변, 몽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 눈 안에 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의 바이칼 호수, 몽골의 밤하늘, 한나라호 위에서 새벽과 독도, 유라시아 횡단열차 안 창가 밖을 바라보던 기억들. 부산이 유라시아 관문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왔기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웠던 2기 원정대원 모두 사랑합니다.

대학생  
한동민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우연히 동아리 모임에서 마주하게 된 한 장의 포스터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획을 그어 줄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양물류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으로서,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한다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슬로건에 이끌려 시험이 끝나자마자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도, 그 동안 대외활동 한번 해보지 못한 평범한 대학생이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서류 합격 날짜 발표 날을 헛갈려서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음날 날아온 한 통의 면접문자에 부러지게 몇 일간 준비한 면접의 결과는 다행히도 합격이었습니다.

부산의 대표로 11,164km의 대장정을 함께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몇 번의 만남을 거쳐 드디어 한나라호에 탑승해서 많은 배움을 받으며, 배가 항구를 떠나가던 그 순간, 부산의 대표로 원정대를 떠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박21일 내내 계속해서 이동하며 마주했던 새로운 환경들, 블라디스토크의 비 내리는 항구, 중국의 백두산 천지, 몽골 계곡의 아름다운 밤, 이르쿠츠크의 바이칼 호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거리, 매 순간이 새롭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20박21일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긴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 본적이 없었기에,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이런 걱정들은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원정대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가장 큰 두 가지는 많은 좋은 사람들과 값진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가슴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많은 대학생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다 함께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또 특별초청 분들과도 이동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틈틈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미래에 대한 좋은 조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마치 선물세트처럼 세대, 분야를 망라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표 민간 외교사절단의 임무를 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교류행사에 참가한 것 역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20박21일 동안 여러 도시를 여행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였기에, 조금 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부산이라는 도시에 애정과 소속감이 생겼고, 태극기를 달고 방문하는 역마다 환영식을 받는 경험은 나중에 혼자 여행을 온다고 해도 대신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을 수도, 길수도 있는 20박21일간의 여정이었지만,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강의교육팀원으로, 홍보영상 시나리오 작가로,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생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준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준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준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생  
이상현



누구나 가고 싶어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짧고도 긴 여정의 유라시아 원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몽골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만여 km의 거리를 부산원정대가 다녀왔다.

21일간의 원정동안 어찌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필자뿐 아니라 우리 원정대원 모두 힘들고 지쳤던 일 또한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부모의 품을 떠나 20대의 청년들이 이런 여정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공동체생활에 있어 더욱 잘 적응해나갈 수 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과 21일을 지내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부대껴보니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렇게 잘 뭉칠 수 있고 힘들어도 여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진분들의 몫이 크다. 그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욱 더 힘이 되었다.

처음 한나라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때가 생각난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우리! 첫날 밤 화합의 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던 그때를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당황했고, 부산데이를 하면서 많은 러시아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다. 러시아를 뒤로 하고 중국에서 부산원정대는 여러 조선족 도시를 방문했다. 그 중 연길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연길에서 대학생들간의 친선교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 중국의 하이라이트! 우리 원정대원 모두가 기대하던 백두산에 갔다. 운이 좋아야만 천지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역시 운이 좋았다. 백두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맑은 천지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천지 정상에 한글로 비석이 세워져있었다. 만약 통일이 되었다면 백두산을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 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잡았다. 백두산의 장엄함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도착한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사뭇 다른 러시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 러시아의 중심 모스크바, 진짜 유럽임을 느낄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각 도시들마다 그 특색들이 다 달랐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왼쪽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원정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닌 문화사절단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원정! 많은 것을 얻어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 대원들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더욱 빛나게 해준 우리 원정대원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함께 한 모든 순간, 순간이 좋았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영원하라.~~

대학생  
강윤원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그 동안 나는 무엇이 나를 유라시아 원정대에 참가하도록 이끌었는지 알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서 유라시아는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애매한 경계, 한마디로 무관심의 땅이었고, 오래전부터 1인 배낭여행만을 고집해 온 내가 원정대라는 속성에 흥미를 느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원정길에 올랐고 나를 포함한 56명의 대원들과 20여 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위험하고 힘들기만 할텐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를 떠난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온 반응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었다. 20일 중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빡빡한 일정에 시설은 열악했고 위험을 대비해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한국에서는 겪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새 그곳에 적응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종 행사와 교류를 치루고 밤늦게 숙소로 들어와서 물레 맥주를 까먹고, 새벽 5시 기상을 앞두고도 밤새 이야기꽃을 피워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는 그렇게 20일을 보낼 수 있었다.

2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원정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되는데도 아직도 한 번씩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한나라호에서 바라봤던 동해 밤바다, 러시아의 첫인상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지울 수 있었던 연길의 밤, 한눈에 담을 수 없었던 백두산 천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었던 바이칼 호수, 풀벌레와 모닥불 타는 소릴 들으며 잠들었던 몽골의 밤, 우랄 산맥의 정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이르쿠츠크 경계비, 러시아의 웅장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지루했지만 잊을 수 없는 열차 안에서의 시간과 풍경들까지, 모든 것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된다.

원정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 고작 대학생인 내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지만 원정의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문화 사절단이란 것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계속 된 문화 교류와 행사 속에서 깨달았다. 그렇게 모든 원정대원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우리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었고, 수많은 환경 속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이 지나도 그때의 추억이 그리울 것이고, 그 추억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무엇이 나를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에 참가하도록 이끌었을까. 대답하자면 그것은 아마 강한 끌림 때문이 아니었을까. 머리로선 설명할 수 없지만 복합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어떠한 강한 끌림이 나를 그곳으로 불러들였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만난 아주 소중한 인연들을 한국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유라시아에서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한 우리 대원들 한 명 한 명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과거 실크로드라고 불렸던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루했지만 대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길 위에서 가장 반짝이던 것은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내 옆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 될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를 언제나 응원하겠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파이팅!

대학생  
조용준



지난 4월쯤 작년에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1기로 활동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제게 2기 신청을 권유했을 때만 해도, 제가 정말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 어느새 멀경거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은 채 다음 방문할 도시에서의 일정을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요.

시작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 종착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어린이집을 맡는 것이 저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 밤에 타투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하고, 한국의 딱지를 전파하며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온몸에 거품을 묻혀가며 비누방울 장난을 같이 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과 놀아 주다 보니 온 몸이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저와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장난을 치고 스티커를 이며 깔깔 웃었던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그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난 봄 부산원정대에 지원할 때 ‘한국 학생들이 러시아에 한 번 간다고 해서 양국 간에 갑자기 문화교류와 무역이 급증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 주춧돌을 놓는데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고 적은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불과 3주의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활동만으로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 몽골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믿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테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원정대원들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 기간 동안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웃음 또는 지식을 주기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와 대본을 고민했고, 누군가는 원정대원들과 현지 학생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통역을 해 주었고, 누군가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길 바라면서 열심히 행사 소품을 만들었고, 또 누군가는 이런 학생들과 늘 함께 하며 우리들을 지원해 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기 원정대원들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몽골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말고 주변에 유라시아를 더 알리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3기, 4기, 5기가 끊임 없이 계속 되어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과 부산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베리아에서 열차를 갈아타듯 비록 사람들은 바빠지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와 그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라시아대륙을 달리고 있을 수많은 횡단열차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쿿가에 멍도는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쳐 봅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화이팅!

## 2017 유라시아 도시포럼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의 역할을 이해하고, 동북지역 도시 간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지역 도시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중·러 6개 도시 40여명의 해외인사 및 부산참가자 200여명의 규모로 동북지역 도시 간 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등을 통해 부산이 유라시아 지역 도시들과 꾸준히 교류협력을 해 온 값진 결실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일시/장소 : 2017. 10. 19(목) 10:00-18:30/ 벡스코 제1전시장 3층
- 주최/주관 :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 참가자 : 한·중·러 관계 공무원, 기업인, 학자, 대학생 등 200여명
- 프로그램

구 분	주 제	주 요 내 용
특별세션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비즈니스 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잠재력: 경제, 산업, 기술, 관광
제1세션 (개막 기조 세션)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	기조연설: 부산시장, 해외인사 및 기관장 등
제2세션 (비즈니스 세션)	동북지역 도시 간 실천적 물류협력 방안	발표 및 토론: 한·중·러 물류전문가, 기업인 등
제3세션 (유라시아 비정상회담)	화합과 번영의 유라시아 그 위대한 역사를 열기위한 청년들의 제언	발표 및 토코콘서트: 한·중·러 대학생 *JTBC 비정상회담 패널: 왕심린, 니콜라스클라분데



특별세션



제1세션(개막기조세션)



제2세션(비즈니스세션)



제3세션(유라시아 비정상회담)

# Eurasia Busan Expedition 2017

- Period : 2017. 7. 11(Tue.) ~ 7. 31(Mon.), 21 days and 20 nights  
 \*7. 11 ~ 7. 12(Port of Busan - Port of Vladivostok): Running the Maritime Logistics Route Expedition of the Korean East Sea Rim and the Dokdo Defense Event
- Participants : 177 persons  
 - Expedition members: 56 persons(University students from Busan 35, Special guests 11, Operating team 10)  
 - Busan Economic Mission 24, Busan Metropolitan Chorus 33, Busan Medical Tour 34, Youth Basketball Team 19, Group of Mayor 11
- Title



- Route  
 Port of Busan(Hannara Busan) ⇨ Vladivostok ⇨ Yanji ⇨ Mt. Baekdu ⇨ Changchun ⇨ Beijing(TMGR) ⇨ Ulaanbaatar ⇨ Irkutsk(TSR) ⇨ Yekaterinburg ⇨ Moscow(SAPSAN) ⇨ St. Petersburg(Flight) ⇨ Busan



- Hosted / Supported by :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Participating Universities : Kyungsoo University, Tongmyong University, Dongseo University, Dong-A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ngsan University,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Sponsored by : Busan Metropolitan Corp., Busan Bank, Kookmin Bank, Nongshim Co. Ltd., Treskta Co., Ltd.,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Culture &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 Main Contents : Complex Marine·Land Logistics Route Exploration and Exchange Events

<b>Busan · Dokdo</b> (7.11~7.12)	<b>Vladivostok</b> (7.13~7.14)	<b>Yenji · Mt. Baekdu · Changchun · Beijing</b> (7.15~7.18)	<b>Ulaanbaatar</b> (7.19~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ening Ceremony</li> <li>·Maritime Logistics Route Expedition of Korean East Sea Rim</li> <li>·Dokdo Defense Ev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lcome Ceremony</li> <li>·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Busan-Vladivostok Sistership (Busan Day Event)</li> <li>·Busan-Vladivostok Music Nigh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Yenji Friendship Night</li> <li>·Look for a Trace of Korea's Liberation</li> <li>·Field Trip to a Korean Corporation (Nongshim)</li> <li>·Hope of Reunification - Exploration of Mt. Baekd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Ulaanbaatar Friendship Night</li> <li>·Cultural Volunteering</li> </ul>
<b>Irkutsk</b> (7.22~7.23)	<b>Yekaterinburg</b> (7.25~7.26)	<b>Moscow</b> (7.27~7.28)	<b>St. Petersburg</b> (7.29~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Irkutsk University Students Exchange</li> <li>·Busan Film Festival (Haeunda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lebration of Eurasia Junction(Unveiling Expedition Sig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trip to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li> <li>·Busan-Moscow Next Leaders Exchan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 Day Event</li> </ul>

# Schedule

Day	Date	Time	Events Name	Events City	Venue	Note
Day1	7/11(Tue)	13:3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ening Ceremony</li> <li>Maritime Logistics Route Expedition of Korean East Sea Ri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li> <li>Hannara Busan</li> </ul>	Busan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Marine
Day2	7/12(Wed)	All 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rine transportation</li> <li>Dokdo Defense Ev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kdo</li> </ul>		Marine
Day3	7/13(Thu)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lcome Ceremony</li> </ul>		Port of Vladivostok	
Day4	7/14(Fri)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lebration of Busan-Vladivostok's 25th anniversary of the sistership(Busan Da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ladivostok</li> </ul>	Sports Beach Park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Vladivostok Music Night</li> <li>* Busan Medical and Tourism Briefing Session, and Economic Mission are proceeded separately.</li> </ul>		Philharmonic Theater	
Day5	7/15(Sat)	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hasan→(Monument of Patriot Ahn Jung-geun, Kazan VVar)→Border of Hunchun→Yenj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zan Kraskino</li> <li>Hunchun</li> </ul>	Yanbian Hotel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Yenji Friendship Nigh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enji</li> </ul>		
Day6	7/16(Sun)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ok for a Trace of Korea's Liberation (Birthplace of Yoon Dong-ju, Extortion of 150,000, 3.13 Monument, Daesung Middle Schoo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ngjing</li> </ul>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ngjing → Erdaobaih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daobaihe</li> </ul>		
Day7	7/17(Mon)	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Trip to a Korean Corpor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daobaihe</li> </ul>	Nongshim Baeksansoo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pe of reunification - Exploration of Mt. Baekdu(We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t. Baekdu</li> </ul>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t. Baekdu → Changchu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angchun</li> </ul>		
		2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8H 55M(Changchun → Beijing)</li> </ul>			
Day8	7/18(Tue)	08:36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rival</li> <li>- Train/15H(Beijing → Ulaanbaata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ijing</li> </ul>		TMGR
Day9	7/19(Wed)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lcome Ceremon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laanbaatar</li> </ul>	Ulaanbaatar Station	
Day10	7/20(Thu)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story Trip</li> </ul>		Chinggis Huree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Ulaanbaatar Friendship Night</li> </ul>			
Day11	7/21(Fri)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ultural Volunteering(Mural painting)</li> </ul>		Songinkhairkhan 19-dong Kindergarten	TMGR
		1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24H(Ulaanbaatar → Irkutsk)</li> </ul>			
Day12	7/22(Sat)	1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lcome Ceremon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kuts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kutsk Station</li> <li>Restaurant at Hotel Breeze</li> </ul>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Irkutsk University Students Exchange I</li> </ul>			
Day13	7/23(Sun)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Irkutsk University Students Exchange 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restor Hotel</li> <li>Irkutsk Arts Theater</li> </ul>	TSR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 Film Festival</li> </ul>			
		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2D 7H(Irkutsk → Yekaterinburg)</li> </ul>			
Day14	7/24(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li> </ul>			
Day15	7/25(Tue)	2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riv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ekaterinburg</li> </ul>		
Day16	7/26(Wed)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lebration of Eurasia Junction(Expedition Sign)</li> </ul>			TSR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26H(Yekaterinburg → Moscow)</li> </ul>			
Day17	7/27(Thu)	15: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lcome Ceremon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scow</li> </ul>	Moscow Station	
Day18	7/28(Fri)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Trip to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 Busan-Moscow Next Leaders Exchan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li> </ul>	
		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in/4H(Moscow → St. Petersburg)</li> </ul>			
Day19	7/29(Sat)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an Da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 Petersburg</li> </ul>	Alexandrovskiy Park	SAPSAN
Day20	7/30(Sun)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al Exploration</li> </ul>			Flight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light(St. Petersburg → Incheon)</li> </ul>			
Day21	7/31(Mon)	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rival in Inche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parture to Busan(17: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mhae International Airport</li> </ul>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rival in Busan</li> </ul>			